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

필자의 미국 유학 시절 가장 부러웠던 것 중 하나는 연구자가 다양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전 세대만 해도 미국 유학 시절에 겪은 다양한 전설들이 있었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유학가서 처음 탔다든지, 혹은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사용했다든지 하는 에피소드들이다. 하지만, 필자가 유학을 한 1980년대 말만 해도 벌써 한국에도 맥도널드가 들어왔을 시점이니 필자에게 그런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이었다. 하지만, 연구 분야에서의 다양한 패널 데이터의 사용은 사정이 달랐다. PSID, NLSY 등 이름만 들어도 부럽던 여러 가지 패널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의 연구 환경이 그냥 부러울 따름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런 패널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진이 아니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필자가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2000년대 초만 해도 필자에게 미국과 비교해서 국내 연구환경에서 가장 부럽던 것은 역시 패널 데이터의 사용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해외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짐짓 별 것 아닌 양 하지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복지패널이 탄생한지 벌써 5년이 돼 이제 5년차까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패널 데이터에서 그 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데이터 유실률도 다른 나라의 유수한 패널 데이터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제는 매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논문들만으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한국 사회복지 학문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한국복지패널이 만든 셈이다. 이제는 PSID, NLSY 등의 이름을 들으면 부

럽다는 생각보다는 한국복지패널과 비교연구가 가능한지를 생각해본다.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위논문을 위해서 연구자 각자가 소규모의 직접 수집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를 데이터의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사회복지 연구의 다학제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복지패널학술대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 보건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 학문분야의 이론과 방법론이 한국복지패널이라는 동일한 자료에 적용되고 활용됨으로써 학문 분야간의 소통과 상호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고급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개발도 한국복지패널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과거에 마땅히 적용할 데이터가 없어 교과서에서만 머물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이제는 실제로 적용되고 발전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이제 패널데이터로서는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5년차를 마치고 아동기로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가 5년 정도 축적됨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인 종단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또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복지에 관련되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샘플 수도 상당히 커, 기존에 상세한 실증적 분석이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분석도 가능케 한다. 이번에 출간되는 '보건복지포럼'의 초점주제만 보아도 '주거실태', '건강', '복지권' 등에 대한 실증연구는 그런 분야에서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한 이론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도 보여준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의 사회과학이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이론과 방법론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증연구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복지패널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한국복지패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도 필요하다. 우선 정책연구에서 이차 자료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좀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특정한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따로 직접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정책관련 연구를 발주하는 부처에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 가령 차상위 층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부랴부랴 '차상위'층에 대한 자료를 새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한국복지패널에는 벌써 '차상위' 층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종단적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연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분석 제안은 항상 그래도 뭔가 자료를 따로 수집해야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국복지패널이 단순한 종단

자료의 축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다양한 정책분석 활용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역량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복지패널정책분석연구센터'를 상설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때그때 정책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분석을 빠른 시간에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보건복지부의 기관인 ASPE(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같은 곳에서는 정책분석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몇 개의 연구센터와 지속적인 관계를 토대로 기존에 축적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종합적인 패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연구지원방식도 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여러 곳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복지패널도 출범서부터 현재까지 연구비는 전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복지패널 규모 정도의 패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요구된다. 그러한 연구비는 한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한 패널데이터를 보면 보통 5~6개의 큰 재단이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연구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토가 있기도 하다. 가령 예를 들면 한국복지패널도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따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수한 연구에 연구지원을 보다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지원이 가능해지면 각 지원하는 주체가 관심있는 분야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토대에 추가자료 수집과 분석 방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아동복지에 관심있는 연구재단이 지원해서 기존 복지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연도에는 아동발달 심층분석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따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접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아동발달자료를 기존에 이루어진 복지패널조사자료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구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 사회복지 분야 연구의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심층적인 복지이론과 정밀한 복지정책 개발을 견인하기를 기대해 본다. 보건복지